

광주지역 대표맛집 10곳 밀키트로 만난다

시, 소상공인 상품화 개발 사업 추진 공모 통해 김치·반찬 등 10개사 선정 시제품 제작 등 상품화 전과정 지원 “온라인 진출 등 요식업계 매출 향상”

광주지역 맛집 메뉴를 밀키트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7일 광주시는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밀키트 상

품화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지역 대표맛집 10곳을 선정해 주요 메뉴를 밀키트로 개발·판매한다.

특히 상품개발 전문가 컨설팅과 상품 디자인 기획, 시제품 제작, 온오프라인 판매, 마케팅 지원 등 밀키트 상품화 전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밀키트 상품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최근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체인

티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4일까지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상품화 개발 대상은 김치, 반찬, 광주 전통시장상품, 광주대표 음식상품, 지원업체 자체 개발상품, 광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품 등 밀키트화가 가능한 모든 상품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밀키트 제조 판매가 가능한 소상공인은 대표메뉴 소개가 포함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등을 재단 소상공인

디지털전환실로이메일(changho@gjep.or.kr)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메뉴의 지역성 및 가치성 등 서류평가와 품질관리력 등 기술력, 제품 생산력, 시장성 등을 살펴보는 현장평가 등을 종합 심사해 10곳을 선정, 오는 9월까지 밀키트를 개발한다.

개발한 밀키트는 티몬 플랫폼과 해당 점포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된다. 또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끼니지원사업협약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

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지역 대표 맛집 등의 메뉴를 밀키트로 출시해 온라인 진출까지 지원한다”며 “광주의 맛을 전국으로 알리고 요식업계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송영길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성과 편승”

광주 서구갑에 욕중 출마한 송영길(사진) 소나무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정권 심판 분위기 전환에 공로가 크지만, 소나무당의 성과에 편승한 부분이 있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송 대표는 지난 5일 정다는 소나무당 대변인에게 보낸 욕중 서신(4월3일 작성)을 통해 “올해 2월 항소심 재판까지 아무 말 않고 눈치를 보다가 법정 불구속이 되자 윤석열 탄핵 선봉을 자처하는 조국(혁)신당 모습이 소나무당 헌신의 성과를 가로채 간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송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야권 파이를 키우고 윤석열 정권 심판 분위기 전환에 공로는 크다”며 “우리는 중도보수, 이대남으로 확장해 가보자”고 정



대변인을 독려했다.

송 대표는 지난 3일 제주 4·3 추도일이자, 보석 석방 기각에 따른 항의의 단식을 시작한 날 편지를 썼으며 지난 4일 오후 도착했다.

송 대표는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방송연설을 녹화했으며, KBS광주방송총국이 광주지역에 방송했다. 서구갑에서는 송 대표의 아내 남영신씨와 딸, 아들이 남편·아버지를 대신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1월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이다.

김은지 기자



‘동구의 오월 기억여행’

‘2024 동구의 오월 기억여행’ 참가자들이 6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 전일마루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5·18 사적지를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월 25일까지(5월 18일 제외) 진행된다.

광주 동구 제공

안도걸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 협력”

안도걸(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5일 선거사무소에서 광주시간호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간호법 제정, 시니어 간호사 확보대책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숙정 광주시간호사회 회장, 주덕 광주시간호사회 제2부회장, 박명희 조선간호대 총장, 기정숙 광주시간호사회 감사, 고미숙 광주시간호사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안 후보는 “보건의료문제의 경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건강 보장이라는 대원



칙에 입각해 모든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 어디서나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개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시니어 간호사 확보, 간호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통합간호센터’ 설치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전남도, ‘항공사진’ 최신 공간정보 무상 개방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업 ‘수치표고 모형’도 공개

전남도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 제작한 항공사진과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5000분의 1 국가기본도를 공급받아 최신 공간정보를 무상 개방한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전남도와 국토지리정보원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매년 전남 전역을 촬영해 제공중이며 올해는 높이를 알

수 있는 ‘수치표고 모형’까지도 공개할 계획이다.

최신 항공 영상과 수치지형도, 드론 영상에 대해 공공기관은 전남도 공간정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도민은 전남도 공간정보 참여마당(https://map.jeonnam.go.kr)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공간정보 플랫폼에서는 최신 공간정보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항공영상을 시계열로 확인할 수 있다. 수치

지형도와 지적도, 용도지역 등 각종 주제도와 중첩해 위치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도심과 산단 등 개발사업이 빈번한 지역은 직접 촬영한 드론 영상도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는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업해 산불, 풍수해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 이전·이후의 고해상도 영상을 재난유형별 최적의 용복합 데이터로 가공, 재난 대응·복구에 즉시 활용토록 제공하는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를 시행한다. **곽지혜 기자**

함평 나비 대축제

제 26회 HAMPYEONG BUTTERFLY FESTIVAL

2024. 4. 26. (금) - 5. 6. (월)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오직 함평나비대축제에서 즐길 수 있어요!

- 체험 프로그램**
 - 가족과 함께하는 나비 날리기
 - 나비 손수건 만들기
 - 비눗방울 놀이
 - 전통놀이 체험
 - 인디언댄스(센터)
 - 젓소목장 나들이 체험
 - 나비브로치 만들기
 - 나비의상 체험
- 문화/공연 행사**
 - 개막 공연
 - 나비 뮤직 페스타
 - 마술, 버블쇼
 - 지역예술단체 공연
 - 나비거리퍼레이드
 - 버스킹 공연
 - 엄마까투리(싱어롱소)
 - 어린이날 한마당 잔치 및 경연대회
- 전시관**
 - 나비곤충생태·표본전시관
 - 수생·다육식물관
 - 자연생태관
 - 친환경농업관
 - 곤충생태학교
 - 함평추억공작소(황금박쥐전시관)
 - 함평군립미술관
 - VR체험관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기는 **함평 자동차극장**

관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함평 천지물**

주최 | 함평군 | 주관 | 함평축제관광재단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한국관광공사 | ex 한국도로공사 | KORAIL | 한국곤충학회 | (사)한국응용곤충학회